

[그때 그 이야기]

© 김월일

여덟살 때 찍은 화보사진



김월일 프로필 :

- 1954년 연길 출생
- 1970년 2월 하향식청년으로 연길현 장안향에 하향
- 1980년 연길시주택공사 취직
- 1996년 길림건축공정학원 졸업
- 2004년 4월 연길시주택공사 퇴직 현재 석화문화원 회원

여덟살 소녀가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10주년 경축대회에서 춤추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고 그 사진이 후날 <민족화보>에 실리면서 변화된 인생 이야기 ...

그 화보 속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다. 한 소녀의 꿈, 한 선생님의 헌신, 그리고 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웃고 춤추는 모습이 담긴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안으로 들어섰다. 두 팔을 벌려 장단에 맞춰 폴짝폴짝 뛰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사진사 아저씨가 나타나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춤추는 소녀와 장단 치는 소년, 북을 맨 채 환하게 웃는 녀선생님, 다리를 꼬고 앉아 통소를 부는 할아버지, 흰 수건을 두르고 하얀 차마저고리를 입고 장단 치는 할머니...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그 아름다운 역사의 순간이 사진사의 카메라에 오롯이 담겼다.

집안이 발각 뒤집혔다. 엄마는 “아 이유, 정말 우리 월일이 나왔구나!” 하며 화보책을 이리저리 돌려보셨다. 외할아버지부터 언니, 오빠들까지 모두 큰 경사가 난 듯 기뻐 어쩔 줄 몰라했다. 엄마는 동네방네 자랑하러 다니느라 바쁘셨다. 그 한장의 사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학교에서 나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해마다 6·1절 행사 때는 검열 꽃차에 앉아 주석단 앞을 지나갔고 학교 행사 때는 대표로 꽃다발을 증정하는 게 내 몫이 되었

식을 물었다. 선생님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평판을 받자마자 조선족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일부러 북경에서 다시 연길까지 오셨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농촌으로 내려가서 선생님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 당시 선생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선생님께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분을 다시 찾아뵙지 못한 것은 내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 1964년 1월호 <민족화보> 안표지에 실린 사진 <로소동락> (老少同乐)

그날의 녀선생님은 북경 중앙민족학원 교수님이라는 것을 후에야 알게 되었다. 자치주 창립 10주년을 취재하기 위해 북경에서 촬영가를 모시고 먼길을 오셨다고 한다. 촬영가는 우리 민족의 축제 현장을 부지런히 렌즈에 담았고 그 사진은 1964년 1월호 <민족화보> 안표지에 <로소동락> (老少同乐)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1964년초, 당시 연변의학원 도서관에서 일하던 오빠가 새로 들어온 화보책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동생 사진이 <민족화보>에 실렸어요!”

그 사진 한장은 나에게 소중한 동년의 기념이자 연변조선족자치주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잡았다. 세월은 류수와 같이 흘렀다. 10여년이 지난 어느 봄, 나는 농촌에 하향하여 생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날 장단 치던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벌써 고중 2학년생이 되어 모내기 철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것이었다. 이름은 김훈, 별명은 ‘장단’이었다. 그만큼 그가 장단을 잘 쳤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조심스레 녀선생님 소

2026 랭킹 중국 대학 순위 발표

길림 두 대학교, 전국 50 위권 진입

4월 15일, 고등교육전문평가기구 랭킹(软科)은 ‘2026 랭킹 중국 대학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순위에는 길림성의 32개 대학이 포함되었는데 그중 공립대학이 24개, 사립대학이 8개로 집계되었다. 주요 순위인 종합성 대학 순위에서 길림대학이 26위로 성내 대학을 선도하고 동북사범대학이 48위로 뒤를 이으며 나란히 전국 50 위권에 진입했다. 이외에도 장춘리공대학은 138위, 연변대학은 157위, 길림농업대학은 161위로 주요 순위 200 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단과성 대학 순위에서는 장춘중의약대학이 중의약 대학 부문 15위, 길림재경대학이 재경류 대학 부문 19

위, 길림체육학원이 체육류 대학 부문 13위를 기록하였다.

사립대학 총순위에는 길림성의 8개 대학이 포함되었는데 길림외국어대학이 사립언어류 대학 부문 1위를, 장춘재경학원이 사립재경류 대학 부문 2위를 유지했다.

사립대학 총순위 100 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학으로는 장춘광화학원(17위), 길림건축과학기술학원(23위), 장춘전자과학기술학원(29위), 장춘과학기술학원(30위), 장춘건축학원(65위), 장춘인문학원(85위)이다.

주요 순위에서 청화대학, 북경대학, 절강대학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 김월일보

연변주 U13, U10 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2026년 제 5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 U13 조 / U10 조 (연변경기구) 및 연변주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가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룡정시 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연변축구협회, 연변교정축구협회에서 주최하였다.

경기는 U13 조와 U10 조 두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 전 주 각지에서 온 15

개 팀의 300여명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5일간의 치열한 점전 끝에 연길시체육운동학교, 룡정시체육운동학교, 훈춘시체육운동학교가 각각 U13 조 1위-3위를 차지하고 연길시중앙소학교, 연길시연신소학교, 연길시공원소학교가 각각 U10 조 1위-3위를 차지하였다. / 연변주체육국



연길시연신소학교 3대 구기 학급 리그전 개최

4월 8일, 연길시연신소학교에서 제 23회 ‘연신리그’ 축구·배구·농구 3대 구기 학급 리그전이 정식으로 개막되었다. 이번 대회에 1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교내 축구경기장에 나섰으며 학교 최초로 농구경기를 전개하는 등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로 교정에 활기를 더했다.

/ 중국조선족소년보

图说 我们的价值观

行善是福

天津大郑剪纸

中华有福

爱国 敬业 诚信 友善

自由 平等 公正 法治

富强 民主 文明 和谐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